

현재 낙농위기 극복해야 안정발전



최 기 수
농수축산신문 차장

비온뒤 땅은 굳어진다.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자연경관을 지키는 환경낙농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밑거름을 뿌릴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낙농업하면 목가적인 풍경이 떠오른다. 젖소가 초지에서 한가롭게 풀을 뜯는 가장 전원적인 풍경이 낙농업이다. 알프스를 다녀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푸른 초지에서 젖소가 풀을 뜯는 모습은 그야말로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이다. 탄성과 함께 전원생활의 꿈을 그리게 한다. 스위스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켜주는 근간은 바로 낙농업이다. 스위스에 젖소가 없다면 아름다운 초지는 보전될 수 없다. 초지가 없는 아름다운 알프스를 상상하기는 어렵다. 낙농업은 그야말로 스위스의 최대 관광자원인 셈이다.

우리나라의 낙농업은 이와는 상황이 다르다. 낙농업 하면 목가적인 전원생활이 떠오르지만 낙농현장에 나가보면 실망하게 된다. TV나 영화, 사진, 그림 등에서 볼 수 있는 목가적인 전원풍경은 어디에가도 찾아보기가 어렵다. 낙농가 입장에서는 낙농업은 생계수단으로 가장 힘든 직업에 종사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스위스의 낙농가처럼 관광자원을 지키는 업종에 종사한다는 자부심을 갖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관광자원을 지키는 자부심보다는 환경파괴범으로 몰리거나 앓을까 걱정해야 하는게 현재 낙농가가 처한 입장이라고 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국내 낙농가가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이라면 완전식품인 우유를 생산해 국민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이다.

여기서 낙농업계의 내부를 좀더 깊게 들여다보면 한국의 낙농업은 분명히 최대의 위기국면에 빠져 있

다. 낙농업을 통해 환경과 자연경관을 지킨다는 자부심은 고사하고 과연 낙농업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10월말 유업체간의 우유품질 논쟁으로 우유 소비가 급감하는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 곧바로 보건복지부가 우유내 유해잔류물질 발표를 해 낙농업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여기다 곧바로 계절적으로 우유비수기에 들어가면서 우유소비는 더욱 감소, 유가공업체나 유가공조합에는 분유가 쌓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10월말부터 쌓이기 시작한 분유는 해를 넘기고 우유 성수기인 봄철로 접어들면서도 줄어들기는 고사하고 계속 늘어나 5월 현재 1만4천톤을 넘어섰다.

낙농업의 위기는 1만4천톤이 넘는 분유가 악성재고라는데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낙농제품의 시장이 전면적으로 개방되다시피 하면서 값싼 모조분유의 수입이 범람하면서 국내산 재고분유의 설자리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은 유가공조합의 경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문을 닫는 유가공조합도 나오지 않겠냐는 위기감마저 엄습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다. 유가공조합이 도산을 한다는 얘기는 낙농가의 납유처가 없어진다는 점을 의미한다. 낙농업계의 최대의 위기일 수 밖에 없다. 이같은 낙농업의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낙농가는 거의 없다. 그러다보니 낙농업계 내부에서는 재고분유를 정부가 차액보전방식으로 구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율적으로 생산조절을 할테니 도태보상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마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농업은 어디로 갈 것인가」하는 자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보는 이의 생각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현재의 낙농업이 최대의 위기상황에 빠져 있다고 하지만 안정적인 낙농업을 하는 낙농가도 많으며, 그들은 걱정없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것이다. 그 반대의 낙농가는 「어떻게 하나」하고 밤잠을 설치고 있을 게 뻔하다.

기자는 낙농업의 앞날에 대해서 두가지 시각을 갖

고 있다.

첫번째는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위기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현재의 낙농업은 과도기이자 전환기라고 보면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사실 낙농업은 7년간의 대장정끝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93년말 타결된 후 이듬해인 '94년부터 과도기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95년부터 낙농제품 시장을 거의다 개방하는 결과를 낳았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93년말부터 낙농업계에는 '94년 하반기 위기설이 설득력있게 나돌았다. '94년 위기설은 그해 여름 흑서여파로 젖소의 생산성이 급락을 하면서 꼬리를 감추었고 지난해 10월 우유품질 논쟁이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낙농업은 호황을 갈구했다. 하지만 낙농업 위기설은 우유품질 논쟁을 도화선으로 현실로 나타났다. 이미 지난해 낙농제품 시장이 개방되면서 값싼 모조분유의 수입이 급증하는 등 낙농업의 위기가 수면위로 부상했다. 그리고 앞으로 값싼 모조분유등 유제품의 수입과 국내시장의 잠식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낙농업의 위기국면은 일시적으로 완화되는 시점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두번째는 장기적으로는 낙농업의 미래가 어둡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단기적인 낙농업의 위기는 백색우유를 제외한 가공제품의 시장을 수입낙농품에 완전히 넘겨주는 시점까지는 지속될 것이다. 이같은 일진광풍이 몰아치고 난후 낙농업은 백색시유시장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비운뒤 땅은 굳어진다.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자부심과 함께 생산성향상을 통해 경쟁력을 키우고 자연경관을 지키는 환경낙농업으로 거듭 태어나는 밑거름을 뿌릴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창간 15주년 기념호 특집계재로
축산인칼럼등 연재물은 6월호에
서는 쉽니다. 필자, 독자들의 이
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